지난 5일 전주시 완산구 한사랑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문화공간 '싹'이 진행한 '관찰! 행복발견'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직접 만든 작품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예술의 꿈 움터가는 '예술 둥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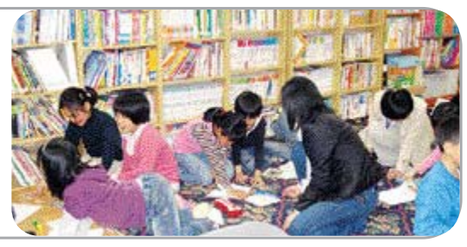
光州日報 연중 캠페인

함께 할수록 커지는 문화 나눔

Hand in Hand

<제2부> 문화 향기 현장속으로

〈2〉 전주 문화공간 '싹'



2005년 문 연 대안 공간…'관찰…' '가족' 등 프로그램 차별화

전북 문화 찾기에도 적극…예산 연연 않는 '자체운영' 목표

"이 사진은 제가 놀이공원에 갔을 때 친구랑 찍은 사진인데 멋지게 한번 꾸며봤어요."

"과학자가 되고 싶은 꿈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지난 5일 전주시 전주박물관 인근에 위치한 한사랑지역아동센터는 하루 종일 아이들의 재잘거림으로 시끄러웠다. 이날 아이들은 전주의 문화 공간 '싹'이 진행하는 '관찰! 행복 발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프로그램을 진행한 선생님들은 전북대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싹'의 대표 채성태(35)씨와 미술교육을 전공한 이훈희(35), 일본인 강사 하네지 요시에(43)씨였다.

올 말까지 모두 30회에 걸쳐 진행되는 '관찰! 행복발견'은 지난해 채 씨가 처음 기획한 프로그램. 아이들은 각자가 미리 준비해온 사진을 오려 붙인 후 색색의 싸인펜과 스티커 등으로 장식을 해 자신의 또 다른 얼굴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다.

장미연(11·우전초 4년)양은 "펜으로 그림을 그리는 데 참 재미있었다"며 "앞으로 내 작품이 전시도 된다는 데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주의 문화공간 '싹'은 이름처럼 전주를 비롯한 전북 지역의 문화 텃밭에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만드는 일을 하는 이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 곳이자 그룹의 이름이다.

아파트 단지가 즐비한 완산구 서신동에 자리잡은 '싹'은 1995년부터 '싹'이라는 모임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던 채 씨가 고정된 장소의 필요성을 느껴 지난 2005년 마련한 공간이다.

실내 낚시터를 개조한 80평 규모의 공간에서는 아동, 학부모, 이주여성, 성폭행 피해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과 전시회가 진행되고 특히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제집'처럼 자유롭게 드나들며 자연스럽게 문화 교육의 세례를 받는 곳이다.

'관찰! 행복 발견' 프로그램 역시 채씨가 아이들과 몸으로 부대끼며 체계를 잡아간 프로그램이다.

'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 교육 프로젝트는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이다. 전북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2006년과 2007년 두차례 실시한 '가족'이 타 지역 단체들의 프로그램과 차별화 되는 건 그들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데서 벗어나, 바로 그들의 문화를 한국에 알리며 자부심을 갖도록 한다는 점이다.

베트남과 일본 등 매년 연중 탐구 대상 나라를 선정, 그 나라의문화를 배우는 과정으로 무엇보다 이주여성들이 직접 문화 강사가 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강사로 나섰던 요시에씨는 아예 '싹'의 문화 강사로 나서 일본 관련 교육 뿐 아니라 가타 교육 프로그램에도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중이다.

'싹'은 전북의 문화 찾기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섬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진행한 '보물섬'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5월부터 7월까지 위도·선유도·무녀도 등에서 진행된 '보물섬' 프로젝트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조개 등을 담아두는 궤짝으로 멋진 작품을 구상하고, 선생님들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큰 물통'인 '바다'를 가진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부러움 담긴 말을 들으며 모래사장에서 멋진 조각을 만들었다.

또 지난해부터는 젊은 작가들이 진행하는 '전북기행' 시리즈도 시작했다. 전주·군산·익산·고창·부안 등 자신의 고향을 찾아간 다섯명의 작가들이 '전북기행-산책'이라는 제목으로 전시회를 열었고, 결국 이 작업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자신의 뿌리를 찾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다.

문화공간 '싹'이 주목받는 이유는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에 연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굴러간다는 데 있다. 물론 '싹'도 문화예술위위원회나 전북도로 부터 지원금을 받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싹'은 지원이 없어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싹'이 모토로 내건 게 '돈 안드는 프로그램'이다. 값비싼 재료 등을 활용하는 대신,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이템들도 프로그램을 짜고, 그렇다보니 '싹'에 둥지를 틀고 있는 예술가들은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쏟아내야한다는 직업병(?)에 시달린다.

물론 20여명의 회원들과 프로젝트마다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예술가들이 무보수로 참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다른 '일감'에서 얻은 이익을 '싹'에 투자하는 이들도 많다.

사실, 지역 문화계의 경우 예산 문제 때문에 각종 문화 관련 프로젝트가 일회성에 그치고 마는 걸 감안하면 가장 벤치마킹할 부분이다.

"제가 하는 것을 거창하게 문화 예술교육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남들보다 먼저 시작했고 조금 더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준다고 생각하죠. 문화예술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부터 대상자들과 수시로 만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친근감을 조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싹'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미친듯이 일하는 채 씨는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것들을 전하기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뛸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후원 Land Life Love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문화 강사 활동 이주여성 요시에씨

"엄마 나라 문화 가르치며 보람 느끼고 행복해요"

"어린이 여러분, 전 일본인이예요. 여러분을 만나려고 일본에서 방금 날아왔어요. 하하."

한국에서 15년째 살고 있는 일본인 하네지 요시에(여·43·고딕)씨가 아이들에게 농담을 하며 어색했던 분위기를 풀어줬다.

중학교 3학년과 초등학교 1학년 등 딸만 셋을 둔 요시에씨는 지난해부터 '싹'의 문화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싹을 찾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일본 문화도 가르쳐 주고, '싹'이 운영하는 일반 교육 프로그램에 보조 강사로 참여중이다.

지난해 '싹'이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인연을 맺은 요시에씨는 당초 일본어 강사를 모집한다는 줄 알고 '싹'에 문의를 했었다.

"엄마 나라에 대해 소개하고, 가르쳐 주는 강사 역할을 할 수 있겠냐고 해서 얼른 하겠다고 했어요. 사실 저도 한국문화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땐 일본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거든요.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분명 다른 엄마하고는 다르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몰랐기 때문에 어릴 때 많이 힘들어했어요."

문화강사로 참여하면서 요시에씨는 이주여성과 자녀, 남편, 그리고 시댁 식구와 이웃들까지 조금씩 일본에 대해 마음을 열어가는 것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

"지난해 섬 아이들과 진행하는 '보물섬' 프로젝트부터 일반 프로그램 강사로도 참여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똘망똘망한 눈을 보면 보람도 느끼고 행복해요."

젊은 시절 클래식 발레를 하다 몸이 안좋아 그만 뒀다는 요시에씨는 "그 때 접었던 꿈을 이렇게 봉사로 풀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도 좋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문화 나눔 현장, 알려주세요

문화는 나눌수록 더욱 커집니다. 소외계층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는 객석 기부, 예술인들의 공연 기부, 기업체의 예술단체 지원 등 아름다운 문화나눔 현장을 찾아갑니다.

작은 목소리도 큰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 주변의 향기로운 문화 나눔 소식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광주일보사(062-220-0661, mekim@kwangju.co.kr)나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062-381-2234)로 연락주시면 됩니다.